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 년)		
		06:30 (새벽), 19:00 (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부활 대축일 미사 안내

4월 17일(일) 부활 대축일	10:00(중고등부) 10:30(교중), 12:00(낮), 19:00(저녁)
---------------------	---

● 알 림

- 4월 16일(성 토요일)부터 본당 알레그로 카페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 4월 21일(목)부터 오전 10시 미사를 재개합니다.
- 다음 주(4월 24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부터 본당 소모임 및 반모임을 재개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외박 교우 예비신자 교리반

- 예비모임 : 5월 1일(일) 교중 미사 후 강당
- 기간 : 5월 8일(일) ~ 7월 24일(일), 총 12회
- 시간 : 주일 오전 9시~10시(주일 교중미사 참석 의무)
- 세례식 : 7월 30일(토) 오후 2시

*** 지구의 날 '어스 아워' 캠페인 ***

지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인 지구촌 소등 행사에 동참해 주세요.
소등시간 : 4월 22일 20:00~20:10 (10분간 소등)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 온 인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께 성령으로 잉태되심
 - 나자렛에서 목수로서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하심
 -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고 유대인 종교 생활을 하심
- 공생활
 -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단식과 기도를 하심
 -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
 -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 사람의 마음과 영혼 치유
- 죽음 부활 승리
 - 기득권자의 모함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
 -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희망
 -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심

● 다음 주일(4/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4월 6일 ~ 4월 12일)

교 무 금		10,820,000원
주일헌금		4,151,000원
사순절 이웃돕기 2차 헌금		1,570,000원
돈술신협 부활절 이웃돕기 후원금	...	5,000,000원
	황정후15만원 유○○15만원 안옥순 2만원	
감사헌금	최은화 5만원 박길순 5만원 홍용만 5만원	
	김태훈 5만원 강규석10만원 박상덕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17	유명진	오성환	김진수	최웅조	김보금
4/24	이영민	이응남	신종구	김덕영	김강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4/17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이화봉
4/24	오광운	장인홍	이운영	박형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대중적인 또는 대중 영합주의자

156. 최근 ‘대중 영합주의’와 ‘대중 영합주의자’라는 표현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일상 대화 안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지녔던 가치를 상실하고 이미 분열된 사회에서 양극화의 또 다른 원천이 되었습니다. ‘대중 영합주의자’ 또는 ‘비 대중 영합주의자’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개인, 단체, 사회, 정부를 분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이편 아니면 저편으로, 곧 편파적인 비난이나 극찬으로 양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57. 대중 영합주의를 사회 현실을 해석하는 열쇠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는 ‘민중’이라는 단어의 적법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말에서 이러한 개념을 없애려는 시도는 ‘민중에 의한 정부’인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삭제하는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개개인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민중’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거대 물결과 공동체적 열망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을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다름을 초월하는 공통된 목표를 제안하고 여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열망 없이는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중’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거대 물결과 공동체적 열망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을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다름을 초월하는 공통된 목표를 제안하고 여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열망 없이는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중’이라는 명사와 ‘대중적’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됩니다. 대중 선동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실의 근본적 측면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158.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중’은 논리적 범주도 아니며 신비적 범주도 아닙니다. 곧 그 민중의 모든 행위가 선하다거나 그들이 ‘천사와 같은’ 실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신화적 범주입니다. ……민중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때, 여러분은 설명을 위하여 논리적 범주들을 사용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한 민중에 속하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중’이라는 단어에는 순전히 논리적인 용어로만 설명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민중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유대에서 나온 공동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더디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